



땀방울 모아 광주 전국체전 金캔다

스포츠 포커스

전국 대학선수권 제패 조선대 레슬링부

은 시간에 효율적이고 집중력 있는 훈련'을 강조해 선수들에게 인기가 높다. 반면 '승부사'로 불리는 정교치는 승부욕이 강해 연습시간에 소홀이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헉! 헉! 헉!
돌리고
구르고
버티고
:

“헉! 헉! 헉!”
지난 17일 조선대학교 체육관 2층 레슬링 연습장. 16명의 조선대학교 레슬링부 선수들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훈련에 여념이 없다.
이날은 제한절로 공휴일이지만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동령배와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위해 구슬땀을 쏟아내고 있다.
한 선수와 대결을 벌인 후 곧바로 다음 선수와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결을 계속 하는 ‘프리 모션’ 훈련. 이미 경기복은 젖어있고, 비오듯이 쏟아지는 땀 때문에 상대 선수를 잡아 기술 걸기마저 어렵다.

국가대표 3명 배출한 신흥 명문

기자의 카메라를 본 한 선수가 촬영을 돕기 위해 동작을 좀 쉽게 하려 하자 ‘꼭바로 하라’는 양원석(4년) 주장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잡아 돌리고, 구르고, 버티고, 서로 우세를 잡기 위한 기세 싸움을 벌이는 선수들의 눈빛은 연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진지하다.

조선대학교 레슬링부는 지난 1971년 처음 전국대회에 조선대학교 이름을 달고 출전

했다. 이전에는 체육관 소속. 이후에도 조선대학교 레슬링부는 확실한 자리를 잡지 못했으나 지난 1991년 김승영(44)감독이 부임하면서 전국최강의 레슬링부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경남대학교와 쌍벽을 이루며 대학부 최강자리를 다투고 있는 최정상급의 팀이 됐다. 자유형 55kg 김효섭(삼성), 60kg급 오준석(남궁청), 66kg급 정영호(상무)등 국가대표 3인을 배출했으며 자유형 120kg급 고승진(3년)이 그 계보를 이어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제31회 전국대학레슬링 선수권에서는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해 오는 10월 광주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전망을 밝게 했다.
조선대학교 레슬링부가 광주전국체전에서 노리는 금메달은 모두 5개.

자유형 고승진(3년)은 현 국가대표로 태클과 옆굴리기 기술이 뛰어난데다 체력이 좋아 120kg급 그레코로만형과 자유형에서 2관왕이 무난하다. 이외에 지난 전국대학레슬링부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상우(3년)와 60kg급 최원호(4년), 66kg급

박성운(3년)이 금메달 후보다.

투기종목은 당일 컨디션이 메달 색깔을 좌우하기 때문에 100% 잠담은 어렵지만 이들의 기량이 라면 최소 5개의 금메달은 딸수 있다는 김승용 감독의 예상이다.

전국 최강 조선대학교 레슬링부의 힘은 강한 투지와 기술을 갖춘 선수들의 역량이지만 이들의 뒤에는 모교 선배인 김승용 감독(85학번), 정천

108계단 오르내리며 지옥훈련

모(32·95학번)코치의 헌신적인 지도가 뒷받침하고 있다. 김감독과 정교치 모두 조선대학교 선배로서 이들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통할 정도’다.

감독과 코치가 모두 모교 선배들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자발적으로 훈련하고 감독과 코치도 제 자기 전에 후배들을 위해 지도에 최선을 다한다.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가자’다.

세계주니어 대회 금메달 출신의 김감독은 ‘땀

“체전서 최소 금 5개 따다” 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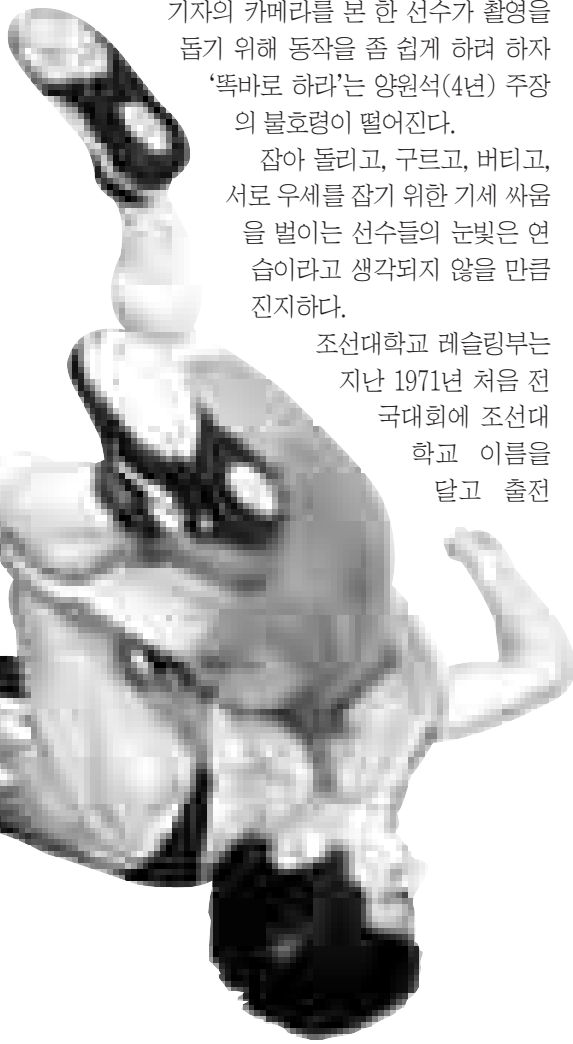
여름 훈련은 오전 오후로 나뉘는데 오전 10시~12시까지 체력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오후 3시~5시나 6시까지 기술습득을 위한 훈련을 한다. 특히 이번 여름 훈련에는 일반부 광주 남구청 선배들과 함께 훈련을 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훈련은 조선대학교 본관 108계단을 오르내리는 체력 훈련. 그냥 오르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인 1조가 돼 손을 잡고 내려야 하는 훈련은 ‘지옥’ 그 자체다.

이 훈련은 단지 체력을 기르는 것 뿐만 아니라 조선대학교 체육인으로서 투지와 자긍심을 키우는데 더 없이 좋은 훈련이다. 선수들도 지옥을 경험하지만 조선대학교 선수라는 긍지를 갖게 하는 이 훈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무더위를 넘어 매트위에 구슬땀을 흘리는 조선대학교 레슬러들의 목에는 이미 금메달이 걸려 있는 듯 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랫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선호승, 정연석, 홍석민, 최원호, 김상우, 장광호 선수. 정천모 코치, 명창주, 박병복, 성룡, 강필훈, 신재우, 서창재, 문성일, 박성운, 양원석 선수.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영광군 남천리 080안경점 대표 최경호 ☎(061)352-1782	한승종합인테리어 영광읍 남천리 080안경점 대표 장명석 ☎(061)352-6521	실비식당 영광읍 동동리 매일시장1구 대표 김기레 ☎(061)355-0388	청해진 쌍촌동 상무시장 KT정문앞 대표 김기레 ☎(062)384-8992	만수회관 호남동 광주세무서 건너편 대표 최은경 ☎(062)223-0146	고려홍삼직판장 송정동 송정시장과 귀정철서사이 대표 김희철 ☎(062)943-0389	보성축타파도커피 동구정동 구도동맞은편 광어고양방 대표 최은경 ☎(062)224-3190
스타이발관 영광읍 남천리 영광실업고교 대표 최경호 ☎(061)352-1782	JTE재능교육영광지점 영광읍 남천리 김관수비인후과맞은편 대표 박성순 ☎(011)617-5601	영광군수화통역센터 영광읍 백학리 58-4번지 2층 대표 박성순 ☎(061)352-6313	구진포장요리전문 나주시 다시면 기운리 37-1번지 대표 정태극 ☎(061)335-9104	화석시대양산점 양산동 광주은행 양산본점앞 대표 정태극 ☎(062)571-3692	까꼬GO보고GO 능성동 세종APT점문앞 대표 김희철 ☎(062)363-9361	송부자집 오치동 오치중앙대중병원앞골목 대표 김희철 ☎(062)262-1777
진성축산성계공사 영광읍 무림리 영광우육농협 대표 박성순 ☎(061)353-0033	금성푸르넷영광지점 영광읍 남천리 김관수비인후과맞은편 대표 박성순 ☎(011)617-5601	부동산119컨설팅 영광읍 을 단주리 좋은약국2층 대표 노창욱 ☎(061)353-4995	보은상사 나주시 금성동 나주종합타운 대표 정태극 ☎(061)332-7900	홍궁 주월동 구구빈이식당 대표 정태극 ☎(062)419-7788	우정회수산 송정동 다성모텔앞 대표 최환동 ☎(062)942-4577	노정명리철학원 우산동 동산고건너 우체국옆골목 대표 최환동 ☎(062)456-1666
푸르넷공부방영광지점 영광읍 남천리 코엑스지점가2층 대표 박성순 ☎(061)352-2220	네네치킨영광점 영광읍 남천리 080안경점 대표 박성순 ☎(061)351-1045	한성회관 영광읍 남천리 데이빌앞 거병미트앞 대표 박성순 ☎(061)353-3386	구진포장촌장어집 나주시 안창동 595-4번지 대표 정태극 ☎(061)334-6383	한우몽 하동 남양주시거리남쪽 대표 정태극 ☎(062)233-9295	합평한우개소 송정동 광신농협맞은편 광신구의회앞 대표 정태극 ☎(062)942-2359	대술마을 관산구 쌍암동 호수공원앞 대표 정태극 ☎(062)974-4300~1
(유)등양온테이너산업 송정동 광주대치로와 송암공원사이 대표 정태극 ☎(062)522-1500	등지공인중개사사무소 양산동 양산택지개발지구내 대표 김희철 ☎(062)576-4080	주흥학사역술원 중심시외구, 피터와식산건너편 대표 정태극 ☎(062)227-3698				